





서가풍경

한 건축사가가 채집한 근대공간의 기억

목원대 건축도시공학부 김정동 교수의 서가

최근 왕성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정동 교수(54, 목원대 건축도시공학부)는 한국 근대 건축사의 권위자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근대건축사료를 발굴해 세상에 알리고 보존하는 일에 힘써왔다. 그만큼 김교수의 서가는 전세계로 다니며 수집한 '죽보 불명'의 자료들로 넘쳐난다. 일제시대 관공서와 상점들의 도면, 병원 개원식을 찍은 사진집류, 건물대장 등 희귀 자료들이 도열해 있다.

“현재 유통되는 근대건축물 사진은 제가 제공한 게 대부분입니다. 일제시대에 나왔던 잡지들도 많이 모아놨는데, 출판사에서 영인본을 만들겠다고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김교수의 책은 성한 게 별로 없다. 작업을 하다보면 책에서 오려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책에 버금가게 많은 것이 슬라이드 필름이다.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찍은 답사자료들이다. 그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책은 존 러스킨의 대표적인 저서 《세븐 램프》인데, 건축과 회화에 대한 문화사적 저술로 1901년에 출간된 초판본이다.

김교수가 발품을 팔아 자료들을 모으는 것은 소장적 가치 때문만은 아니다. 근대건축을 논의하기 전에 그 터전이 망가지고 사라지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계몽적 의도'가 더 강하다.

“근대소설에 많이 묘사되고 있는 각종 주거시설, 교회 등 서구기술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흔적은, 현재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추상적인 건축사관을 따지기보다 개발주의에 밀려 허물어지는 근대건축물들을 우선 발굴하고 정리하는 일이 건축사학자들의 몫입니다.” - 대전·강성민 기자

